

해남군 '미래 키우는 동행' 장학사업 '훈훈'



새마을금고 등 기탁 줄이어...500억 조성 목표 순항 명현관 군수 "학생·군민에 실질적 도움되도록 운영"

해남군에 연초부터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어지며 해남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달 새마을금고 기탁을 비롯해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 기탁자들이 참여해 해남 교육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새마을금고(이사장 김문호)는 정기총회 결산 결과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의 1% 이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

며, 올해도 장학사업기금으로 500만원 기탁했다.

미래클유치원(이사장 박순옥)은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5년째 장학사업기금 기탁에 동참, 150만원을 기탁했다.

박순옥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학사업기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라이프(대표 장순이)는 해남 농

산물을 활용한 가공·체험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6차 산업을 추진해 온 기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직원들과 '라이프 장학회'를 결성해 장학사업기금 기탁을 시작했다. 이번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수미다정농조합법인(대표 이다)은 수미다정농조합법인은 청년들이 다시 해남으로 돌아와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올해로 5년째 장학사업기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군인으로 30여년 복무한 운영진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역 이후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해남 곳곳에서 해설에 나서며 지역 관광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윤 해설사는 지난해 말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100만원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해남의 대표 먹거리인 닭고기를 선보이는 닭요리총협회(회장 안덕준) 소속 음식점에서도 올해로 3년째 장학사업기금 기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300만원의 장학사업기금으로 협의회 구성원인 장수통닭(사장 안덕준), 임미정(사장 윤종선), 돌고개기든(사장 전정제), 명성기든(사장 김귀래), 해물밭에노는닭(사장 김민서)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권 조성

장학사업기금 기탁을 꾸준히 이어갈 뜻을 밝혔다.

평결하늘농협조합의 정민주 회장은 해남군 대한민국 대한명인 식품가공업 1호 명인으로 20년간 해남 배추와 마늘을 사용해 절임배추 사업을 이어오며 얻은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장학사업기금 기탁에 나섰다.

명현관 군수는 "장학사업기금 기탁이 매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며 "기탁자들의 정성이 학생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성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강진청자축제에 핀 '반값 장미' 이목 집중

생산자 직접 판매 저렴 지역 화훼산업에 '활력'

강진청자축제 현장에서 반값 판매되고 있는 '강진 장미'가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자축제 기간(3월 2일까지) 지역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장미 직거래 판매 부스를 운영,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장미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반값 직거래 행사는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였다. 신선한 최고등급의 장미를 합리적인 가격에



강진군은 청자축제 기간 지역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장미 직거래 판매 부스를 운영,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장미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하는 동시에 판매 수익이 농가에 직

접 돌아가도록 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 모델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장 판매 부스에서는 꽃다발, 꽃바구니, 한 송이 포장 상품 등 다양한 상품

을 준비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채로운 색상과 품종의 장미를 한자리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준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 최대 장미 생산단지 '망심화훼영농법인'은 직거래 판매와 함께 청자축제 내 장미 전시 공간을 조성해 청자의 은은한 색감과 화사한 장미가 어우러진 감성 공간을 연출했다. 개막식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장미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강진군 관계자는 "반값 직거래 판매를 중심으로 무료 나눔과 전시를 연계해 강진 장미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3월 20일까지 임시 휴관 로비·퀴진 인테리어 공사...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완도군은 해양치유 서비스·환경 개선 등을 위해 3월 20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해양치유센터는 그동안 조례에 지정된 임시 공휴일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해 왔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임시 휴관하게 됐다.

이 기간 로비와 퀴진의 인테리어 리뉴얼, 조명 시설 개선, 가구 재배치 등 시설물 점검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프로그램 운영 방법, 안전 관리 등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시설 개선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 봄맞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관계자는 "치유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다가오는 봄에 힐링이 필요하다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해양치유 시설로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양기후, 해양 생물·광물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16개의 테라피를 운영 중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진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AI 라이브 커머스·민관협력 등 행정 혁신 주도

진도군이 혁신리더십과 민관협력 강화 등을 선도하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3개 항목을 10개 지표로 세분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총 3등급으로 나눈 평가한다.

진도군은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민관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등 균형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다함께 잘사는 산업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혁신 등 5대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진도군은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운영해 관

광, 교통, 에너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군민소통 사랑방', 정책 연구모임인 '상상이상' 운영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군민의 참여를 강화했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AI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해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24시간 판매하고, 'AI 기반 실시간 반응형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농수산특산물 유통과 판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